

청소년 선교: Mexico



The youth Mexico mission team who had been devoting much of their time, energy, and finances to training and preparation for this trip since May, was comprised of the following team members: Kyle Cho, Jason Hwang, Matthew Ki, Tae Hwan Kim, Sam Lee, James Min, Lois Pak, Lauren Yeom, Jimin You, Jack Lee (chaperone), and Pastor Mike Fujiura.

While in Mexico we were primarily in charge of organizing and executing vacation bible school for over 160 children not just from Cacalchen but also several neighboring cities. This year, in conjunction with KUMC's music department, we were also tasked with helping to conduct a music camp, a venture that has not yet been attempted in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UMC and the Nathaniel Center. This was a bold task considering not many of the children in the region receive any form of music education. In other words, most of the children that were coming to the camp, had no music background whatsoever, and the mission team along with the music department had to be in charge of teaching recorder (flute) to all of them, drums, and xylophone as well, without any of the children knowing how to read music. All of this had to be done in the short span of 4 days and so, when you add in the minor issue of a language barrier, this was no easy task.

Truly God shined down on the mission center because despite the volume of children and various other obstacles, the mission team along with Mrs. Jennifer Lee, and Mr. and Mrs. Joseph and Bora Kim, we accomplished our goal and we were able to put on a music concert in the town center of Cacalchen for over 400 attendees.

Looking beyond the music camp and the vacation bible school, many of the children were so blessed, and without a doubt, so was the youth mission team. God's love was truly present and among us everyday, making the love of Christ seen and felt. It was an amazing and incredible sight to behold when all of the children were playing together and speaking to one another in God's universal language of love, music.

Pastor Mike Fujiura



Harvest of Hope



SPY

Volume 4, Issue 8 August 18 2013

사람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위한

와싱턴한인교회

8월



이달의 말씀 묵상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골로새서 3:1-2〉

속회 사랑방 모임



7월부터 시작한 속회 사랑방이 뜨거운 열기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역장님들, 부지역장님들, 그리고 속장님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공부하고, 함께 속회를 향한 열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의 인도로 속회에서 나눔 말씀을 가지고 속장님들이 함께 묵상하며 삶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각 속회들의 이야기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지역장님, 부지역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속장님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비다속의 발자취

2003년 6월, 6명의 인원으로 첫 속회를 시작한 다비다속은 메릴랜드에 사는 여인들만 주중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친교를 가지며 교회에 봉사하자는 뜻으로 시작하였으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이 돈독하고 구제에 앞장 섰던 여제자 다비다를 본받기를 바라면서 속이름을 다비다속으로 정했습니다.

주중에 여자들만 모이는 속이 있다는 입소문으로 많은 분들이 버지니아에서도 참석하게 되어 많게는 14명까지 모이게 되었기에 언젠가는 출산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버지니아에서 참석하셨던 몇명의 속원들이 2013년 1월부터 분속하여 나오미속을 시작하여 열심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비다 속원은 이도실권사, 장영자집사, 김희자집사, 황미현집사, 김영옥집사, 허숙희집사, 장성윤권사,

윤인숙권사로 총 8명입니다. 속원 모두가 두 속을 섬기면서 매달 두번의 속회를 통해 영적인 삶을 성장시키고 있으며,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갖고 믿음의 도전을 받으며, 예배를 끝낸 후에는 속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나물들을 섞어 사랑의 비빔밥을 나누며 친교를 가집니다..

봉사로써는 가까운 양로원을 방문하여 외로운 노인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교회 안에서는 1부, 3부 Bell Choir 멤버로, 성가대원으로, 주일예배를 위해 주보접기,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헌화부, 부역사역 등 필요한 곳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교활동으로는 감리교 여성국에 속한 거리여성재활원, 버지니아 여성 Shelter, 나다니엘 선교 센터, 한국 울진 평화교회에 필요에 따라 사랑의 현금을 보냅니다.

10년 동안 다비다 속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비다 여제자처럼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하고 구제에 앞장서는 다비다 속원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합니다. **부속장 장성윤**



선교하는 공동체 (7월 속회사역보고)

1. 점심봉사 수익금 과 영구기금 매칭금액:

김검다리 오두막: 북한선교 \$437 (\$437) 총\$874.00
 온맘다해: 나다니엘 센터 \$500 (\$500) 총\$1000
 두리하나 선교회: 두리하나 \$500 (\$1,989) 총\$2,489
 상록속: 장성만목사님, 평화교회 \$500 (\$898) 총\$1,398

영구기금에서 \$1,937 동참
 속회점심봉사 선교 후원 합계: \$5,761.00

2. 매월 나다니엘 장학생을 후원하는 속회:

햇빛속 (\$100), 기쁨속 (\$100), 등대속 (\$50),
 불꽃속 (\$50), 동행속 (\$50)

3. 매월 필리핀 선교사 후원하는 속회: 헌신속 (\$100)

4. 매월 굿네이버스 후원 속회: 시냇가속 (\$70)

속장과

회원은

의를 향해

본성을 버리고

질적 신앙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

<버지니아 북부 지역 속장 모임 오행시>

알.림.판

9월 점심봉사 담당속/부:

8/25 실로암, 샘물; 9/1 진실, 시냇가
 9/8 새싹, 나오미; 9/15 DC Homeless 부
 9/22 쉼터, 헌신; 9/29 Fairfax West

10/6 빛과소금, 오병이어, 버크

9월 '속회사랑방' 속장부부 모임:

8/30 페어팩스 서부 지역 (웨슬리룸)
 9/6 버지니아 북부지역 (이상남 장로님덕)
 9/13 메릴랜드 지역
 9/20 페어팩스 동부지역
 9/27 맥클린 지역

9월 속회뉴스 담당속:

돌봄속(장명희), 버지니아 북부지역 부지역장(박상원), 실로암(박남우)

더한 사랑 속 이야기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더한 사랑 속은 College Park MD를 중심으로 모이는 속회입니다.

5월에 류영규 속장님께서 캐나다로 이주하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새로운 속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속회는 이번에 새로 조인하신 이동근, 김소현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어른 8명과 아이들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전진성+안윤경님의 가정에 사랑스러운 2세가 태어나서 저희 속 모임에 기쁨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사랑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장 오택일

속회의 본질

속속들이 살피고, 속 마음을 터놓아

회뜨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의심없는 믿음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

질그릇에 영적 보화를 담자..

<페어팩스 서부 지역 속장 모임 오행시>